

3중 방역·전용 KTX·안심버스… 메르스 철통방어



‘안심U대회’ 막바지 준비 구슬땀

메르스 사태 확산속에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가 대회 참가 선수단을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한 대회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18일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임원 등은 입국에서 출국까지 완벽 보호를 원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주U대회는 이날까지 139개국 1만2975명이 참가 명단을 확정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선수단은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메르스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한 채 광주에 입성하게 된다.

인천, 무안, 김해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뒤 광주까지 이동은 고속철도(KTX)의 경우 전용칸을 이용하고 버스는 선수단 전용, 이른바 안심버스가 동원된다.

대회 기간 KTX는 인천공항에서 광주까지 하루 5차례 운행하며 조직위는 각 차량에 안전요원을 함께 배치한다.

선수단 수송차량(2953대)에는 차량별 교통경찰 2

교통경찰·전담 가이드 동승

경기장 37곳 의료진 상시대기

법정부 민관 공동기구도 운영

명과 안내·통역요원 1명이 배치돼 선수단을 돕는다. 선수촌 입촌을 마친 뒤 선수촌에서 경기장 이동이나 나들이 길에는 교통경찰관이나 전담 가이드가 따라붙는다.

항상 안전하고 다정다감한 광주의 정을 선수단에 게 보여주고 가슴에 담아 주겠다는 것이 조직위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메르스에 대한 대책으로 세계 최고의 선수촌 시설과 함께 종합병원 수준의 ‘선수촌 병원’과 선별진료소를 24시간 운영한다.

처음부터 선수단이 메르스의 격정을 떨쳐낼 수 있도록 철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선수촌 병원은 내과를 비롯해 외과,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치과, 안과, 한의과, 스포츠의학과 등 9개과와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10병상의 입원실도 갖췄다.

조직위는 종합병원 수준 이상의 의료 시설과 장비, 의료진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광주 17곳, 전남 16곳, 전북 3곳과 충북 1곳 등 모두 37곳 경기장에는 의료진과 구급차가 상시 대기한다.



18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윤창현 광주시장과 조영표 광주시의회의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윤택림 전남대학병원장, 김윤석 광주U대회 사무총장, 박찬국 조선대병원 부원장이 ‘광주는 메르스로부터 안전하다’는 내용을 담은 내외신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현해기자 choi@kwangju.co.kr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대학스포츠연맹(FISU) 의무위원회 관계자 등 19명이 선수촌에 상주하면서 선수단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여기에 현재 조직위를 중심으로 한 민관공동 대

책기구를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격상시키는 등 안심U대회 법정부 민관 공동대책기구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법정부 기구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시, 광주시의사회 등 참여하는 등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대회의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첫 임무는 ‘메르스 수습’ 컨트롤타워 당정청 소통라인 복구도 시급한 현안

황교안 총리 역할과 과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18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황교안 총리 체제가 출범했다. 하지만 총리부재 상황이 길었던 만큼 황 총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수북이 쌓여있다.

◇메르스 ‘컨트롤타워’=발 등에 떨어진 불은 단연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는 일이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취임식도 뒤로 미룬 채 메르스 현장으로 달려갔다.

첫번째 임정은 메르스 환자 치료의 최일선 현장인 국립의료원 방문이었다. 황 총리는 건물 5층과 8층에 마련된 격리음압병동을 찾았다. 격리음압병동은 기압차를 이용해 공기가 병실 안쪽에서만 유입되도록 설계된 특수 병동으로, 메르스와 결핵 등 각종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쓰인다.

황 총리는 “일선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일 먼저 (국립의료원을) 찾아왔다”며 “내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메르스 종식의 선봉에 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황 총리는 내각의 수장으로서 메르스 및 가뭄 대응 등 법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최 경제부총리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메르스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축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당정청 소통 라인 복구=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거부권 정국을 슬기롭게 넘기는 것도 황 총리

앞에 주어진 과제다. 국회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고,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당정청간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당 경협이 없는 황 총리보다 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나 당 대표를 역임한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당정 소통을 주도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개혁과 사회통합=황 총리는 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상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출신답게 ‘전문 분야’를 살려 고강도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역시 “황 내정자는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 한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내정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 사면 논란 속에서 불거진 사면제도 개선은 황 총리가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황 총리는 사회 통합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국민과 국회와 소통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일에 저의 모든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 개혁과 총리실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하고 있는 규제 개혁에도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與도 野도 이탈표 없었다

국회 황교안 총리 인준안 표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18일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56.1%의 찬성표를 받았다.

이는 총리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이한동,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찬성률이다.

이날 투표 참석 의원 수는 모두 278명이었다. 국회와 양당 분석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56명, 새정치민주연합은 119명이 참석했다. 무소속인 정의화 국회의장과 원내 새누리당 소속이었다가 탈당한 유승우 의원,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한 천정배 의원 등 무소속 3명도 표결에 나섰다. 다만, 정의당 소속 의원 5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찬성은 156표, 반대는 120표, 무효는 2표였다. 공교롭게도 새누리당의 표결 참여 인원과 찬성표가 정확히 일치한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해 왔고, 이날 의총에서 원내지도부가 의원들에게 ‘반대표투표’를 권고했다는 점에서 찬성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새누리당 의원 거의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론된다.

다만, 정 의장이나 유 의원이 원래 여당 소속이었

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효 2표가 여당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부터 이틀간 원내지도부는 수차례 소속 의원들의 ‘출석체크’를 해 왔는데 철저한 ‘표 단속’에 성공한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새누리당 소속 160명 중 수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완구·송광호·박상은·조현룡 의원 4명만 제외하고 156명이 참석해 ‘높은 출석률’을 기록했다.

새정치연합 의원 중에서 일부 찬성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 경우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찬성표만큼 새누리당에서 ‘반대표’가 나왔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새정치연합에서는 119명이 투표했고 반대표는 그보다 1표 많은 120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자당의 이탈표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초대 총리였던 정홍원 총리는 인준 표결에서 찬성률이 72.4%였다. 이명박정부 시절 정운찬 총리의 인준 찬성률은 92.7%였지만, 야당인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표결에 불참해 여당 단독으로 이뤄진 ‘반쪽투표’였다.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실시된 장상, 장대환 총리 임명동의안은 잇따라 국회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박지정기자 jkpark@

당신의
어른이날은
언제입니까?

어린이를 도울때
진짜 어른이 됩니다

후원문의 | 1588-1940

어린이를 위한 첫 기부로 당신만의 어린이날을 만드세요
어린이를 돕는 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대한항공이 함께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KOREAN AIR